

2016년 12월 14일 [제14강]

## 요한계시록 1장 ~ 11장

### [요한계시록]

1. **저자:** (1절)에 저자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 **수신자:** (1장 4절, 11절), 그리고 2장과 3장에 기록된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표면상의 수신자입니다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3. **기록 연대와 장소:** 1세기 말 (90-100년)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당시에 밧모섬(1:9)에 유형당해 있던 요한이 어느 주일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 중에 계시를 받고 쓴 책입니다. 밧모섬은 밀레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의 작은 섬으로 오늘날 그리이스 영토에 속하고 있습니다. .
4. **저작 목적:**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런 로마는 승승장구 커지고, 요한마저 귀향을 가게 되자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는 저렇게 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냐는 것이지요. 이런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교회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려주고 궁극적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 5.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

요한계시록은 계시(혹은 묵시, 1장 1절)이며 예언(1장 3절)이며 서신(1장 4절)입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며 숨겨진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문학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유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다니엘서 7장 이후와 요한 계시록이지만 그 외에도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묵시 문학이 있습니다. 묵시는 상징과 비유를 사용하여 기술됩니다.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묘사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제국이 반드시 망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언급하는 무모한 표현보다는 환상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유들 (용, 짐승, 바벨론)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며,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묵시문학의 주된 주제인데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였습니다. 숫자도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대 상황과 연관된 임박한 미래의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궁극적인 종말 사건입니다. 예언을 통하여 이 두가지 사건이 연대기적인 구분 없이 함께 비추어집니다.

## 6.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 (1) 과거적 해석방법 (Preterist)

요한 계시록은 이 책이 쓰여진 당시의 독자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며, 따라서 1세기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여러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주장은 20세기에 와서 다시 재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 (2) 역사적 해석방법 (교회사적 해석, Historical)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중요한 사건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시간표 같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후천년주의를 처음으로 주장한 13세기 요아킴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고, 이후 위클리프, 루터, 쾰링거, 나스 등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 (3) 미래적 해석법 (Futuristic)

(1장 19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네가 본 것 (1장), 지금의 일 (2-3장), 이 다음에 일어날 일 (4장 이후)로 나누어 대부분의 내용을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주로 세대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졌습니다. 특히 일곱 교회를 교회사 전체를 비유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 (4) 상징주의적 해석법 (Symbolic)

요한 계시록은 무시간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선과 악의 투쟁, 교회와 사단의 세력 간의 투쟁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제롬, 어거스틴 등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 (5) 우리의 해석법

요한 계시록 안에는 위의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분명히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교회를 대상으로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거적 해석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 계시록 17장 이후에 기록된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는 분명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이고, 이런 면에서 미래적입니다. 한편, 4장부터 16장 사이에 기록된 예언들 - 하늘보좌 환상부터 시작해서, 일곱 심판 시리즈, 증인과 두 짐승, 여인, 용 등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사이에 일어날 일들로서, 교회와 사단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사이의 기간은 교회가 사단과 전쟁을 벌이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이 한 사건 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입니다.

## [생각해 볼 문제]

1. 1장에서 사도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각각의 묘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2.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느 교회와 가장 닮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3. 4장~5장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하늘의 보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 교회와 다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나요?

## 4. 심판 시리즈의 개요

6장에서 16장까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7심판 시리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심판 시리즈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가중되는 심판의 무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심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요한계시록에서 몸통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동일한 주제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록한 것이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17장1절 - 19장10절에 기록된 바벨론의 멸망과 21장9절 - 22장 5절의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등장에서 그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심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에 의하여 더럽혀졌던 땅과 하늘과 바다와 산을 새롭게 하여 새 예루살렘이 새 창조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7장 1-9절에는 도장을 받는 144,000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장을 받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144,000 명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 8장 1-5절에는 일곱째 봉인을 때면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7. 11장에는 두 증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교회로 비유된다고 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두 증인이 사단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흘 반이 지난 뒤에 부활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증인의 의미:

두 증인이 받은 권세: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